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2 권 2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미사성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p>▶제 1 독서</p> <p style="text-align: right;">에제 2,2-5</p> <p><b>화답송</b></p> <p>◎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p> <p>○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p> <p>○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p> <p>○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멀리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p>		<p>▶제 2 독서</p> <p style="text-align: right;">2 코린 12,7 L-10</p> <p><b>복음환호송</b></p> <p>◎알렐루야.</p> <p>○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p> <p>▶복음</p> <p style="text-align: right;">마르코 6,1-6</p> <p><b>영성체송</b></p> <p>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p>		

## 공 동 체 소 식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7월 8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7월 15일	이 클라라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7월 22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성인복사
7월 29일	이 클라라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7월 1일	\$ 451.00	\$129.00	\$200

\*매월 첫째, 셋째 주일 미사에는 2차 봉헌이 있습니다.

### 성체조배: 7월 12일 (목) 6시 30분 ('6시 저녁미사' 후)

7월 성체조배가 오는 7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있습니다. 성체조배는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미사 후에 있습니다.

### 한인 공동체 야유회: 7월 8일(오늘) 미사후 출발

날짜: 7월 8일 (오늘) 미사 후 출발

시간: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장소: Bear Valley Springs Gated Community, Tehachapi (Private Property)

집합장소: Holiday Inn Express in Tehachapi

901 Capital Hills Parkway, Tehachapi, CA 93561

\* 문의는 총구역장 박 마가렛 자매 (661-665-0898)

###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7월 10일 (화) 오후 7시

### 산클레멘테 공동체 여름성경학교

일시: 7월 30일-8월 3일, 오전 9-12시

대상: 5-12세 아동

\*San Clemente Mission Parish 공동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가 열립니다.

\*신청 및 문의처는 **Licha Lopez (Tel.: 661-323-1848)**입니다.

## 말씀의 이삭

###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최인호베드로 | 작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2년 전이었던 1950년 7월, 우리 가족은 출애굽(出埃及)을 단행하였습니다. 모세였던 엄마의 지휘 하에 큰 누이를 비롯한 여섯 가족은 숨어 지내고 있던 아버지를 찾아서 청계산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섯 살의 어린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난 출애굽처럼 불과 며칠 동안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40년의 고난과 맞먹을 수 있는 그 숨 막히는 탈출과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넌 것은 흥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아니었지만, 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마흔 살 초반의 엄마가 스무 살의 다 큰 처녀에서부터 이제 겨우 두 살의 갓먹이까지 거느리고 나룻배를 구해 도강에 성공한 것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펼쳐 물을 가르' 모세의 기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강을 건너자 짐을 실은 수레바퀴는 모래사장에 빠져서 움푹달락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살의 저까지 수레에 달라붙어 온 가족이 비 오는 모래밭을 간신히 벗어나자 곧 어둠이 내렸습니다.

피난 가고 없는 빈집에서 엄마는 우리를 위해 밥을 짓고 모기장을 쳤습니다. 하룻밤 잔 곳은 누에를 기르던 양잠실이었는데, 사방에 누에가 죽어있어 쌍라군이 내린 듯하였고,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쉼없이 소리가 나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쿠앙쿠앙 폭음소리가 나도 저는 내일이면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쉼없이 옛집의 검둥이처럼 마루를 구르며 세상 모르고 잤습니다.

다음날 일찍 아버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아아, 그 무덥던 긴 여름날. 햇살은 눈부셨고 길은 가도 가도 끝없이 옥양목의 빨래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위를 먹어 배는 남산만큼 튀어나왔고 머리에겐 헌데가 나서 견딜 수 없이 아팠지만 저는 뒹뒹 오뎅이처럼 걸었습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아버지가 있다.”

이 말 한마디면 다섯 살의 어린이였지만 저는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빠를 만날 수 있는데 더위쯤 대수라. 물렸거라, 대갈장군 (어릴 적의 제 별명입니다.) 나가신다. 휘이휘이 물렸거라. 골목대장 나가신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신분을 숨기고 전란을 피해 미리 피난 와 수업을 기르고 밀짚모자를 쓴 농군 모습의 아빠가 성황당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미친 듯이 뛰어나와 맞아주던 모습을. 저를 행가래 쳐서 하늘에 번쩍 들어 올렸다가 부둥켜안던 그 우주와 같은 품속을. 그렇게 우리 가족의 출애굽은 끝이 났고 그해 여름 한 철을 청계산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요즘 저의 화두는 바로 이 다섯 살 때의 기억입니다. 저는 그때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로 무더위와 부스럼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도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고개 하나 넘으면 아빠가 있다는 말 한마디만이 생명이요, 힘이요,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고갯길 저 너머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는 영혼의 하느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순 일곱의 어른인 저는 다섯 살의 어릴 때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미혹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 18.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순일곱의 저는 훨씬 지혜롭고 똑똑해졌을지는 모르지만 다섯 살의 철부지였던 그때의 저보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위즈워스의 시 “무지개” 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오니 주님, 저를 다시 한 번 물과 성령으로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 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서울주보에서-